

'25. 6. 20(금) / 대테러종합상황실

지역별 테러 동향

미 주

- 브라질, 소셜미디어 업체가 불법적 콘텐츠 차단 책임져야
 - 6.12 언론은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불법적 SNS 게시물 관련 플랫폼 업체가 차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며 엑스, 틱톡 등에 게시된 불법성 콘텐츠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경우 법적 책임이 업체 측에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보도
 - ※ 다만, 어떤 콘텐츠를 무슨 기준으로 불법으로 판단할지 어떻게 대응하고 누구에게 보상해야 할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부언
- 美, 민주당 주의원 총격살해범 신원공개
 - 6.15 美 경찰은 지난 14일 미네소타주 외곽에 있는 「멜리사 호트먼」 부부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도주한 「벤스 L. 보엘터」의 신원을 공개하고 현상금 5만달러를 걸었다고 발표
 - ※ 범인은 평소 기독교인으로 낙태에 반대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으며, 同인의 차에는 범행동기가 담긴 성명서와 표적으로 추정되는 명단이 발견
- 美 주한미군, 테러 위협 증가 등 이유로 부대방호태세 격상 유지
 - 6.17 언론은 美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주한미군에부대방호태세를 ‘알파(2단계)’에서 ‘브라보(3단계)’로 격상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재 구체적인 위협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
 - ※ 다만, 미국은 이번 방위태세 격상 지시에 명확한 배경을 밝히지 않았으며, 최근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로 긴장 고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언
- G7, 이란에 긴장 완화 촉구
 - 6.17 언론은 美를 포함한 주요 7개국(G7)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간 갈등 관련, 이란을 중동 지역 불안정의 주요 원인과 테러의 주된 근원으로 지목하며 이란에 ‘긴장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보도
 - ※ 또한, 이란 사태의 해결이 가자지구의 휴전을 포함한 중동의 더 광범위한 긴장 완화로 이어지기를 촉구

유럽

- FATF, 북한·이란·미얀마 자금세탁 테러자금 고위험국 지정
 - 6.15 언론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 지난 10~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회의 본부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북한·이란·미얀마를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으로 재지정했으며 특히 북한은 15년 연속으로 지정되었다고 보도
 - ※ 또한 韓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에서 '자금·결제 투명성을 위한 권고'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부언
- 튀르키예 보안군, 대테러 작전 통해 ISIS 대원 39명 체포
 - 6.16 튀르키예 「알리 예를리카야」 내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지난 2주 동안 18개 주에서 일련의 대테러 작전을 전개해 ISIS와 연계된 대원 39명을 체포했으며, 테러 조직을 지원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발표

아태

- 韓, 카카오톡서 테러모의·아동 성착취 대화시 사용 제재
 - 6.16 언론은 금일부터 카카오톡에서 테러 모의, 테러·극단주의 단체에 대한 지지·홍보,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운영정책을 시행한다고 보도
 - ※ 언론은 제재 대상 행위 적발 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다고 부언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테러 및 반란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 배치
 - 6.15 언론은 나이지리아 육군 참모총장이 일부 지역의 테러와 반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모집된 6,195명의 병사를 전략적인 위치에 배치해 지역 평화와 안보를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
 - ※ 나이지리아는 '24년 테러 빈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235건)으로 현재도 테러 위협 지속

역사속 테러사건

美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난사

- '16.6.12 美 올랜도 소재 성소수자 나이트클럽 '펄스'에서 총기난사 및 인질극이 발생, 49명 사망·53명 부상
 - 테러범 아프간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은 새벽 2시경 최초 총격을 시작으로 클럽을 지키던 보안요원과 교전 후 클럽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3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
 - * 아프간계 이민자 2세로 '86년 뉴욕 출생, 범행 당시 직업은 사설 경비요원으로 전과기록은 없었으나 ISIS 동조자로 의심받아 FBI에서 감시대상으로 지정
 - 경찰은 오전 5시경 특수기동대(SWAT)를 투입, 폭발물과 장갑차로 클럽 벽을 뚫고 진입한 후 총격전 끝에 테러범을 사살
- 테러 이후 ISIS는 홍보매체를 통해 “美 칼리프전사 1명이 기독교인과 게이 무리를 공격했다”고 배후를 자처
 - 한편, FBI는 同 사건을 해외 테러조직의 영향을 받아 급진화된 ‘외로운 늑대’형의 자생적 극단주의 테러로 발표

테러 상식

Weekly Terrorism Trends

< ISIS 호라산* 지부(ISIS-K) >

- * ‘호라산’(Khorasan)은 이란어로 ‘해 뜨는 곳’을 뜻하며 과거 아프간·이란·투르크메니스탄 일대를 지칭, 현재 이란 북동부에 호라산주가 존재
- (결성) '15.1월 ISIS 연계 이슬람 테러단체로 결성, 美 정보당국은 파키스탄(70%)·우즈벡(6%)·체첸(4%)·아프간(4%미만)·아랍(3%)·중국(1%) 출신자로 구성 분석
- (핵심인물) 美 공습으로 간부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조직을 이탈, 現 지휘부는 미상
- (연계세력) ISIS, IMU, 파키스탄 Jundallah
- (활동지역) 아프간-파키스탄 접경 산악지역(주로 아프간 동부 낭가하르주 주변)
- (활동수법) 도시에서는 군·경 및 주요시설 대상 자폭테러, 지방에서는 도로매설 폭탄테러·매복공격 등 게릴라전 전개